



극단, 작은예술 사랑모임

“참선으로 연기 다진다”

도필선 기자

‘연습에 빠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참선에 빠지는 것은 용서 못한다.’ 참선을 통해 연극의 기본기를 익히는 극단 ‘작은예술 사랑모임’(약칭:작예모)의 약속이다.

지난 93년에 창단해 지난달 제 18회 서울연극제 자유 참가작 (비밀에 부러진 나무는 무엇을 맞이하랴)로 첫 공연을 가진 신참내기 극단 작예모는 참선을 통해 연극의 기초를 다진다.

작년 창단때부터 단원들은 격주로 방배동 광명선원에서 참선수련을 하고있다. 작예모의 참선수련은 ‘연극인으로서의 정서와 기본기를 찾을 곳은 참선뿐’이란 연극가 김문기씨의 신념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10분이 지겨워 몸을 어떻게 가늠하야 할지 몰라하던 단원들이었지만 이제는 1~2시간을 거뜬히 해낸다. 또한 그들은 참선수련을 통해 고통을 관내하는 용기와 진실한 연극자의 자세를 함께 배우기도 했다. 지난 여름 썩는듯한 무더위에 이르러지려 연습실을 찾아 정전공공해야 했고, 연극비밀에 부러진 나무는...에서의 정성과 석상을 만들기도 있었지만 있어야 하는 역할의 파분함과 힘겨움을 이겨내는데 참선수련은 더없이 좋은 스승이었다는 것이 단원들의 설명이다.

단원들에게 있어 참선수련은 하나의 생각을 좇아 실패가 풀리듯 고통을 없애고, 부자유스런 몸에서 한없이 자유로워지는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연습가 김문기씨는 “끊임없이 지기의 에너지를 무대공간에 표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연극의 기본기를 만들어 간다.”며 “그런 욕망은 자신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 경우에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알지 못한 채 관객을 향해 작품을 이해시키려는 것은 이윤배반적인 것인 참선으로 작품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극단 작예모는 합리적이고 선정적인 흥취 위주의 연극을 거부한다. 참선에서 얻어진 열린 눈으로 메시지가 있고, 관객과 함께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극으로 당당히 무대에 서겠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각오다.

참선지도를 하는 초격스님은 “어떤 종교에도 구애받지 않는 보편성 속에 부처님 말씀과 참선을 접한 단원들이 참선을 통해 연극을 성취하여 마치게 되어 기쁘다.”며 다른 극단들도 참선수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공연을 마친 극단 작예모는 가난한 연극인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참선수련을 통해 순수예술의 참맛과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를 꾸준히 가꿔 나가고 있다.

연말 불교소설 ‘붓물’ 예상

작가들 칩거하며 야심작준비

불교소설 작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올 여름이후 불교소설 출간이 중단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작가들은 새로운 야심작을 내놓기 위해 집필실에 칩거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이나 내년봄에는 다시 복직한 불교소설들이 대량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소설 **〈칼의 어둠〉**을

바가지) 시리즈 3권을 동시에 내놓을 계획이어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과시하고 있다. 선동화라는 새로운 장르개척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는게 정씨의 설명이다. **〈칼의 어둠〉**은 88년에 불교문학상을 받았던 김중록씨는 5권의 대하소설 **〈산국〉**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연재했던 하유상씨도 숙련 **〈석굴암의 비밀〉**을 쓰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씨는 이 두 추리소설 형식의 작품을 하나로 묶어 연말에 내놓을 생각이다. 최근 30여일간 러시아 여행을 다녀온 윤후영씨는 **〈돈황〉**을 주제로 12년간 써온 작품을 한데 묶어 연말에 내놓는다. **〈명사산의 소녀〉**, **〈돈황의**



▷백경남씨



▷황중상씨



▷김성동씨



▷김중록씨



▷남지심씨

내과 화제를 모았던 백경남씨는 연말쯤에 일가족 43명이 출가한 한 일타스님(은혜사주지)의 가족사를 소설화한 작품을 내놓는다.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백씨의 이 소설은 교계에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는 일타스님의 가족사를 미증유의 민연 이야기로 다루고 있다. 민중사가 책을 낼 계획이며 일타스님이 직접 고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찬주씨는 이미 지난 봄부터 **〈열반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부처님의 일만지 무시나가라를 한창 담사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페스트 감염 사태로 답사가 연기돼 소설도 늦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정씨는 내달초에 선종과 **〈샘물과**

는다. 이어 김씨는 선종과 풍수의 이야기도 장편으로 엮어 낼 참이다. 또 김씨는 다음달을 유·불·선의 중앙정신과 천문·풍수에 입문하게된 자신의 이야기를 쓴 에세이집 **〈나는 이제 하늘을 보며 살아야겠다〉**도 내놓는다.

한국 문학의 큰 산 고은씨도 왕성한 필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경향신문에 **〈나의산하 나의삶〉**을, 문학사상에 **〈열고 먼길〉**을, 월간조선에 **〈선〉**을 연재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는 현대불교에 **〈수미산〉**을 연재한다. 폭넓은 작품 영역 속에 깊이 있는 글로 독자의 가슴을 뒤흔추는 고은씨는 최근 완간한 민족서사시 **〈백두산〉**에 이어 다음달 시집 **〈죽도〉**(가제)를 창작과 비평사를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종교신문에 **〈선굴사의 빛〉**을

사람’을 등재한 권연 **〈관을 묶어서 (물사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펴낼 계획이다. 숙청 정치승들의 실상을 소설화한 **〈사리〉**를 월간 조선에 연재중인 이형씨는 이 연재가 끝나는 대로 **〈조계종 부부사〉**를 정리 할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이씨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분규에 대한 자료들이 거의 없지만 이 분야의 정리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남지심, 황송상씨가 올 연말까지 내년봄을 목표로 장편을 쓰고 있다. 문화일보에 **〈국수〉**를 연재중인 김성중씨도 내년에 책을 낼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대한민국 종교음악제 성료

지난 13일, 「종교와 국악의 만남」 주제로

의 대한민국종교음악제가 지난 13일 오후 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린 이날 음악제는 「종교와 국악의 만남」을 주제로 열렸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종교가 참여한 이번 음악제는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신모듬’을 서곡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음악제에 참가한 불교 합창단(지휘·유문식)은 ‘무상계’, ‘탐들이’ 등 다섯곡을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심장병아동동기음악회 불교사회봉사회

한국불교사회봉사회가 주최하는 94심장병, 백혈병 어린이

들기 자선음악회가 오는 16일 오후 7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은 이 음악회에는 강남포교인 합창단과 열정향, 양은희씨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찬불가와 가곡을 들려준다.

「붓다의 노래」 공연

22일 조계사청년회

조계사 청년회 보리수합창단의 제16회 정기연주회 「붓다의 노래」가 오는 22일 오후 7시 서대문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준형씨의 지휘로 서울내서 넬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덕신님과 임심회 회원들이 출연 수화노래도 선보인다.

보인다. 이날 공연되는 「붓다의 노래」는 효경스님의 글에 정부기씨가 곡을 붙여 92년에 발표한 대형 교향곡이다.

시민위한 국악대제 울산불교문화원

울산 불교문화원이 주최한 울산 시민을 위한 국악대제가 지난 10일 오후 7시 울산KBS홀에서 열렸다.

국악과 불교음악의 진수를 연주한 이날 행사에서는 다도시연, 울산 처용무, 국악관현악과 승무, 국악관현악과 찬불가 등이 연주됐다. 또 신영희, 박양복씨의 관소리와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신모듬」등도 연주돼 참가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불교음악의 대향연

내달 5일, 불교음악연구회 한국불교음악연구회는 11월

소설 수미산 다음주부터 연재



▷작가 고은씨와 최규일 화백

한국 문학의 큰 산 고은씨의 반세기 문학을 회고하는 소설 **「수미산」**이 현대불교신문 2호부터 매주 10면에 연재된다. 삽화는 전각 예술의 영역을 단단히 다져 온 현암 최규일씨가 맡는다.

미생물까지 총동원된 우주의 대교향곡

작가의 말

「수미산」의 문학행위! 이 길고 긴 여정은 내 문학의 한 정점이기도 하다. 몇해전 불교방송국의 설립자 장상문선생께서 소설 **「화엄경」**을 간결한 직후의 나에게 불교의 세계관이 담긴 소설을 극진하게 권하신 바 있어 그 인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것을 탐구하는 일을 포기하고 나서 비현실적이다. 신비다. 허구다라고 단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까지 허구였던 것이 현실의 가장 구체적인 세계로 밝혀지는 일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삶을 흔흔 드높여 온 것인가. 나는 지구의 곳곳이 아니라 우주의 도처에도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상상과 체험의 합치에 이르러는 길이기도 하다. 소설 **「수미산」**은 불교철학의 불문언어와 일체중생 그리고 신물과 미생물 또는 물질의 미립자물까지 총동원되어 활동하는 우

주의 대교향악을 연주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의 초대형 건물모양이 그 안의 회노악과 진리의 외지가 하나하나 살아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다. 수미산의 세계체계는 소설불교에서 구성된 것이지만 바로 그 소설과 대승은 상충되지 않고 연면하는 상충성의 화염을 실행하게 된다. 때로는 시가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열연 소설이기도 하고 아니 작가가 아닌 어떤 정경의 기억 장치가 나와서 마구 퍼부어대는 서술의 폭포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한국문학, 이제까지의 세계문학, 이제까지의 불교문학에서 결핍되었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뜨거운 서원이 지속될 것을 믿으며 「현대불교」의 심심한 독자들과 사람과 채찍앞에 나는 한 적나라한 작가로서 있다.

「수미산」을 쓰는 동안 내 책상은 책상이 아니라 수미산의 여러 하늘이요 그 밑의 여러 지옥이리라.

글 속에 녹아든 마음의 그림 그릴터

화가의 말

한국 문학의 큰 산이라 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고은 선생님의 작품을 내 어찌할 줄 모르며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감격스러우면서도 두려움이기도 하다. 스승도 없이 내마음의 그림을 찾아 전각에 매달려 살다보니 이렇게 좋은 인연도 맺게 되었다. 「수미산」이란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환하게 열리는 소설. 그 문학의

높이를 결연한 마음으로 뒤쫓으며 내 가난한 예술혼이 자양분을 공급하고 싶다. 나는 사실 신문에 삽화를 연재해 본 적이 없다. 그저 장인정신 하나만 지키며 살아왔을 뿐이다. 내 정경에 무슨 아름다운 인연을 삼았기에 이같은 자리에 몸을 두게 되었는가. 기꺼운 마음으로 고은 선생님의 문학에 음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을 삼는 길이 아니겠는가.

원학스님 초대전

불교신문 천5백호 기념

불교신문 지령 천5백호기념 원학스님초대전은 19일부터 25일까지 공평아트홀에서 열린다. 원학스님은 이번 초대전에

산수화와 수묵화를 내놓는다. 원학스님의 산수화는 풍요의 정신을 불교적인 안목으로 해석한 것이 특징이며 수묵화는 선승의 독특한 수행경지를 반영하고 있다. 스님은 불교미술대전과 동아미술제, 국전 등에 다수 입선했으며 이번 전시회는 다섯번째 개인전이다. (문의 = 733-1604)

百聞而不如一見

지금까지 이런 한자교재는 없었다

한자암기비법 - 그것이 알고 싶다

●이래현 선생님의 20여년의 연구결과와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도 짧은시간에 전혀 무리없이 익혀가는 가장 이상적이며 완벽한 속성 교재이다.

“한자암기비법 특허획득”

영재한문비디오를 보기전에는 한자암기비법에 대해 말하지 마라!

구입문의처

이래현 선생

한자 특수 암기 비법

실용신안특허 제49356호

漢文

영재비디오스쿨

VIDEO SCHOOL

TEL. (02) 362 - 8641~4

한자 특수 암기 비법 비디오

한국사회의 漢字복권운동

정상적인 한자교육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기업·구청·성당·개인들이 한자교육에 나서고 있으며 지도층 인사들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왜 지금 우리에게 한문의 중요성이 다시 논의되는가?

국제화시대의 국경정책은 知力에서 나온다. 우리 민족문화의 집합이었던 漢字를 안 쓰면 14억 한자(유교) 문화권에서 고립된다.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상호보완」이란, 우리 문자생활의 슬기...

한자를 안 쓰는 것은 한 날개를 도려내는 것... 한쪽날개만으로는 문화도 국가도 비상할 수 없다

더 이상 한글 세대를 만들지 마라!

대리점 개설문의 ☎ (02) 393-2328

MEDIA 영재 뉴미디어

NEW MEDIA